

# 부산 스포츠 이슈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28**  
2022. 07

## 부산체육인

족구 세계화를 꿈꾸며 첫발을 내딛다  
부산광역시족구협회 **장성완 회장**

## 영광의 주역

골 넣는 센터백 원조 멀티 플레이어  
부산광역시축구협회 **박성화 원로**

## 부산스포츠 히어로

치열한 몸싸움과 짜릿한 스피드로  
코트 위를 누비는  
만덕중학교 **핸드볼부**

## 구·군체육회를 가다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평가 1위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 이슈 & 포커스

- Expo-Kick Match 축구대회 개최
- 제17회 여성체육대회 개최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부산체육人

족구 세계화를 꿈꾸며 첫발을 내딛다

- 부산광역시족구협회 장성완 회장



## 영광의 주역

골 넣는 센터백 원조 멀티 플레이어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박성화 원로



## 부산스포츠 히어로

치열한 몸싸움과 짜릿한 스피드로 코트 위를 누비는

- 만덕중학교 핸드볼부



## 구·군체육회를 가다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평가 1위

-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 이슈 & 포커스

- Expo-Kick Match 축구대회 개최
- 제17회 여성체육대회 개최





## 족구 세계화를 꿈꾸며 첫발을 내딛는다!

부산광역시족구협회

장성완 회장

족구가 시범 종목이 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족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 되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족구의 화려한 모습에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족구의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족구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라며 부산광역시족구협회 장성완 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족구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부산광역시족구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는 ‘한마음’과 ‘일등’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가족이 될 때 비로소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왕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1등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광역시족구협회는 행정적인 측면과 회원들의 단합에서는 단연코 1등이라고 할 수 있죠.”

장성완 회장은 군대에서 단순히 즐기던 족구의 매력에 점점 빠지다 보니 어느덧 30년 넘게 족구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고.





2020 티브로드배 부산족구 최강전 (일등가 우승, 더이스트 준우승)



(사)대한민국족구협회와 일등기업 MOU 체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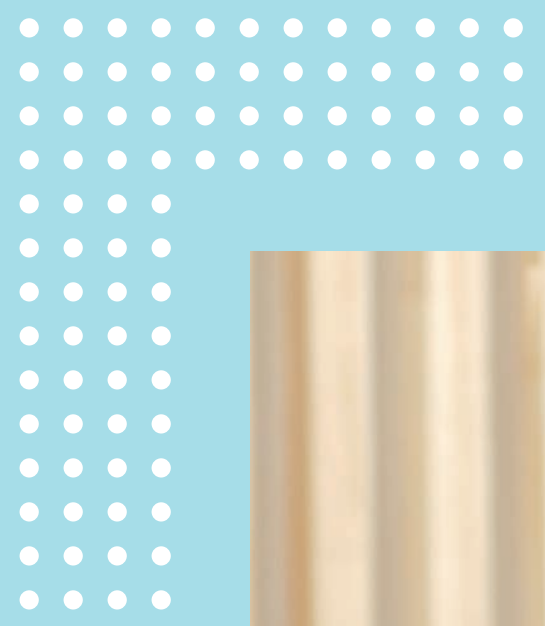
“군대 족구는 공격과 수비만 잘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정식 족구는 화려합니다. 공격, 수비, 토스 이 삼박자가 맞는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족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 취임식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는 중인 장성완 회장. 특히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열리는 족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장 회장이 속한 일등기업에서는 대한민국족구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족구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일등그룹 브랜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곧 족구협회 회원들의 결집을 위한 그의 노력인 셈이다

“전체 족구동호인 중에서 등록하지 않은 선수가 90%나 됩니다. 2010년 기점으로 족구의 관심이 적어진 이유도 선수 등록과 같은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전문체육으로서의 족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족구의 화려한 모습에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족구의 매력에 빠질 것이라는 장성완 회장.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며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그의 포부는 당당했다. 한국 족구의 세계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골 넣는 센터백, 원조 멀티 플레이어

부산광역시축구협회  
박성화 원로

이제는 명예나 물질을 좇기보다는  
사심 없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기본기와 인성까지 두루 갖춘  
선수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중앙 수비수를 꼽을 때면 절대 빠지지 않는 박성화 원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1년간 국가대표 활동을 했을 만큼 훌륭한 선수였던 그는 조금 늦은 나이에 축구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 울산 남창중학교 축구팀에서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을 찾고 있었죠. 축구팀으로 간다면 중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했지만, 그만큼 축구를 배우고 싶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결정 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선택은 탁월했다. 축구에 입문한 지 4년 만에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 되었으니 말이다.

영광의 주역



또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공격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박성화 원로가 선수였을 때 한일전은 정말 중요한 경기였다. 그런데 1979년 한일 정기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의 공격 대들보들이 부재하게 되면서 팀은 위기를 맞았다.

“그때 제가 스트라이커로 출전하였는데, 무리수라는 말이 많았음에도 장경환 감독님께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 경기에서 저는 해트트릭과 어시스트를 하였고, 4대 1로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18년간의 선수 시절을 통틀어 가장 전성기를 맞이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무릎 연골이 다 망가지고 급성간염까지 앓게 되면서 선수 생활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치료 끝에 다시 재기하였고, 통상 A매치 103경기 출장 26골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1985년에 선수 생활에서 은퇴하였다. 고등학교부터 프로팀,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맡았던 그의 다음 목표는 축구 교실 운영이다.

“이제는 명예나 물질을 좇기보다는 사심 없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기본기와 인성까지 두루 갖춘 선수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 치열한 몸싸움과 짜릿한 스피드로 코트 위를 누비는

2001년 창단된 만덕중학교 핸드볼부는 부산 유일의 남자 중학생 핸드볼부로 21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말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하며 창단 이래 최초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만덕중학교 핸드볼부는 동급생과의 훈련을 위해 주말마다 타지역으로 원정 경기를 떠나고 있다. 다양한 상대와 훈련함으로써 경험을 쌓은 덕분에 선수들은 실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곧 만덕중학교에 핸드볼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운동과 전혀 관련 없던 1학년 학생 3명이 핸드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선수 등록까지 마쳤다.

핸드볼부는 이 분위기를 이어 앞으로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핸드볼에 대한 사랑으로 부산 핸드볼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덕중학교 핸드볼부. 앞으로 그들이 코트 위에서 일으킬 돌풍이 더욱 기대된다.





## 2022년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평가 종합 1위 선정 소통으로 이룬 도전의 성과

대한체육회가 매년 전국 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체육회가 종합 1위로 당당하게 선정되었다. 남구체육회가 종합 1위를 한 원동력은 긴밀한 소통은 물론 주민들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출 덕분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체육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자, 구민들의 다양한 피드백 반영을 위해 남구체육회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생활체육 영상 제작을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유명 음악을 삽입한 체조 영상은 유튜브 광고가 붙을 정도로 조회수가 폭발적이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영상 촬영에 임하는 남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평가 종합 1위라는 성과는 식지 않는 열정과 진심 어린 소통의 결과였다.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해 힘쓸 남구체육회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한다.



## Expo-Kick Match 축구대회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는 부산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지난 6월 11일(토)~12일(일) 양일간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축구장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Expo-Kick Match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치렀다.

이번 대회는 총 32개 팀, 700여 명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 경기마다 명승부가 펼쳐졌지만, 특히 결승전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부산교통공사팀이 최종 우승, 기장군청팀이 준우승을 각각 차지하였다. 최우수 선수에는 부산교통공사 조재혁 씨가, 우수 선수에는 기장군청 정우진 씨가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또한 “그동안 주춤했던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시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제17회 여성체육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여성 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7회 여성체육대회가 지난 6월 17일(금)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등 5개소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국학기공, 배구, 배드민턴, 볼링, 체조, 탁구, 테니스 등 총 7개 종목이 개최되었으며, 16개 구군체육회 및 생활체육교실 동호인 1,20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및 엔데믹 전환 이후 열린 대회였던 만큼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 대회를 통해 여성 동호인들의 따뜻한 정과 건강한 활력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